「프리마로프트」

「프리마로프트」는 미국의 「올바니(Albany)」※사(社)가 미군으로부터 「오리털 대신에 슬리핑·백(sleeping bag)안에 넣을 솜」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개발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솜이며, 보온성이 매우 좋다. 이 섬유는 보온성뿐만 아니라 오리털같은 촉감과 청결하고 아주 가볍고 물세탁도 가능하다는 것이 자랑거리다.

일본에서는 이도쭈상사(伊藤忠商事)가 독점판매권과 상표사용권을 갖고 있다. 일본에서는 이미 10여개 회사가 이 섬유로 2001년 추동절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.

※「앨바니」사는 미국의 민간 섬유전문연구소로서, 기업이나 기관에 예속되어 있지 않으며,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다. 연구소의 규모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으나 미국의 권위있는 민간연구소 중의 하나이며, 달을 정복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복도 개발한 실적을 갖고 있으며, 직물조직의 기하학적, 역학적 해석이론의 효시로도 유명한 연구소이다.